주제, 단어

어떤 식으로 쓰겠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그에 맞는 주제, 단어

\*\*\*\*

단어: 옷의 구매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옷의 트렌드를 알아보자.

옷의 사이즈, 핏, 색감, 디자인, 트렌드, 합리적인 가격대(지불능력파악), 옷의 재질 등을 파악하는 경우

특히 남성 옷이 다양하지 않아서 어떤 핏과, 색감을 원하는지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

* 올해의 색, 패턴

\*\*\*\*

단어: 여가시간\_ 스마트폰게임

충남대 학생들의 학년별 시간대별. 여가시간 혹은 공강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체크

(그래서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 관심사에 맞는 게임 어플
* 그 보내는 시간대에 맞는 광고를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등등 에 보여주기.
* 월화수목금, 공강시간의 정의가 문제야
* 아침에 수업은 없어 와있거든 11시부터 1시까지 수업
* 하루일과중에 빈 시간을 공강으로 볼지
* 공강시간에 뭐했냐고 물어봐 한시간 공간
* 점심을먹는다. 어떤사람은 중간에 붕 뜬 시간
* 한시간 강의 수업준비, 인터넷
* 똑 같은 한시간 점심시간 밥 먹는데 그 시간에 딴걸
* 어떻게 조사할지 많이 봐야해
* 안나온다. 회귀분석도 해보고 뭐했는지
* 커피숍가있는다가 많았고, 인터넷쇼핑 게임 같은거 한다.
* \*\*\*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 10분 뭘하면서 오나
* 게임을하면서 오냐 뭘하면서 오냐 …
* 게임하고 연결되서
* 게임을 어떤걸 많이 하는지 바꿨음.
* 10분에 뭘 하냐가 힘들어짐. 하루동안 10분동안 뭐햇는지 자료 봐야함
* (생활시간통계자료) : 15분 단위로 뭐했는지 적해놓음
* 가사노동, 공부시간 등 다 있음..

발표

원전공과 -> 복수전공하는 사람

어느 과에서 뭘 많이 하냐?

과에서 배려하는지

(조교선생, 같이수업든는학생, 교수….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냐의 문제. 느끼는 것)

* 굉장히 복잡해 짐. 누구를 조사해야할지 어떤방식으로 조사해야할지 설문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복잡해짐.

어떻게 느끼는지

<<알바 >>

*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가 줄었는지 알고싶었는데
* 친구들은 어떤 알바를 많이 하는지
*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고용을 안한다 등등 내용이 진짜인지 어떻게 느끼는지
* 여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지로 하는데 실제 고용업주는 달라진게 없어(알바를 직직원으 바꾼 것) -> 고용체계를 바꿔서 그럴수도 있어.
* 고용업주에게도 물어봤어야 함. 양쪽의 관례. 인식차이같은거..

(거대해질수 있음)

\*\*\*

복수전공, 휴학, 결혼유무.

* 휴학을 하면 뭘 하고 그 계획이 잘 실천이 되는지
* 복수전공은 어느 과에서 어떤 거 많이 하는지
* 결혼은 궁금해서

자격증, 동아리

학교동아리, 과동아리 (봉사동아리) -> 진로에 도움이 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지, 왜 들어가 있는지

진로, 쇼핑

학교만족도, 미세먼지, 수강신청

미세먼지: 외출빈도, 마스크, 정부정책의 필요성..

미세먼지-> 마스크 쓰는지 안쓰는지, 개인적 특성. 경각심..

안전불감증이 심한 것(체득이 안되서…)

수강신청: 매크로 도입 관련해서

올해의 색

* 코랄 : 물건을 살 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 (색과 외부요인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함)

택시비가 올라서 할증, 야간버스 운행(대전에선 안하니까)

정심화홀 어느정도 열리는거 아는지, 충대생이 많이 이용하는지, 만족도. 등등

(성별, 나이 등 이런걸 물어보고싶음)

여행같은것도 가족단위로 많이가는지 친구들 언제가는지 왜가는지.

대학생들 소비 등..

소득원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출처와 패턴

적금 유무

* 자주 안 가는데, 여행 질문하면 어려워 짐. (설문지 만들기 어려워짐)
* 기념품

공연에 관심있는건가 정심화홀에 관심있나?

연극, 콘서트, 영화… 이런데 관심이 많은데 여기선 정심화홀이라는 건물이있고 영화볼려면 많이 나가야하니까. 공연할수있는것도 나가야해서…

* 30% 이미자콘서트…ㅋㅋㅋ 어머님나이대 좋아하시는 걸 함.
* 동아리에서 하는 거, 기타동아리. 등
* 차라리 공연이나 문화생활로 포커스를 맞추는게 중요할 듯.

휴학, 성형, 시술

* 성형할생각있나, 할생각. 다시돌아가도 할거냐.. 자존감과의 관계
* “아침에 날 사랑해 잘하고있어” 라고 말하고 다니기

야구 좋아하는지

* SK: 고향따라가는지, 충남대생의 주로 어떤 야구 좋아하는지.

학생 학업성취도 – 아르바이트시간!, 수면시간, 통학시간, 전공적성

: 알바생 학업에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 고민해서, 하는시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알아보고 싶었음.

학업성취도를 뭘로 볼까

최종평점. 졸업시기(몇 학기 남았는지 등)

알바많이했는데 성취도가 안좋다고 나오면 어떻게하지?

임주윤

미세먼지를 주제로

건강에 해로움. =>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궁금.

“열고 공기청정기를 틀자”

막동에 사람이 없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막동에 사람이 없는건지

여가시간에 실외, 실내로 하는지

(막동 ->막걸리동산이 아니라 커피동산으로 바뀌면 올건지)

미세먼지가 얼만큼 몸에 안 좋은지 등등을 알아보자

대처요령을 알고있는지 물어봐야할 것 같음.

남자아이들의 자취방을 선정, 샤오미측정기를 섭외해서 측정

2,2,2,2 4조가 되는거지

한팀은 아침에 15분씩

한팀은 안열게 하고

공기청정기도 집에 없어야함

*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 공기청정기있는집도 한번 돌려봄

\*\* 실험계획.

대학생의 돈을 쓰면 소비패턴 어디에 많이 쓰는지

밥먹으러 가면 궁동을 많이 가는지, 죽동을 많이 가는지, 학교 밥을 많이 가는지

자격증, 적성, 진로

다른과사람들은 뭘 하면서 먹고 살건지

과가 맞아서 직업을 어떤걸 가질지 알고 싶은 것

맞아가지구 준비하는게… 등등

* 다 찾고 있는 중이면 어떻게?
* 협소적으로 가서 공사 공무원 계열을 준비하는지 안하는지를 알아봤음.

300명 물어봤으면 백몇명은 조사가 안되는 식으로 됬었음.

범죄 일어나고 난 후

관계를 보고 안전불감증이란게 진짜 있는지

가장 개인마다 두려워하는 범죄형태같은게 있을건데 그게 주거형태나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차이점이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음.

* 너는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Y/N 부적절
* 이와 같은 여러질문들이 있는데 진짜 알아보고싶은 불안감 점수가 있음.

혹시 내가 알아보고싶은게 범죄불안감이면 이미 개발된게있고. 여러질문으로 엮어진게 있는데

그걸 보면 됨.

**\*\*\***

* **소비패턴은 이미 나와있는게 있음.**
* ( 물건살때 색깔이중요하다, 돈, 등등이 있어서 그걸 보고 성향점수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음)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인식

신천지이냐, 잘 응해주는지, 해주면 왜 해주는지 안해주면 왜 안 해주는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계산방식 ( 더치 페이를 할 건지 한사람이 몰아서 할 건지 혼자서 하고 수금을 할지 ) =>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지 등등…

조사방법론: 조사교육원, 어떤 식의 옷 화장 이거 안되고 말투는 어떻게해야하고 눈빛, 몇번 웃어야하고 등등이 있음.

* 어떤 사람에게 잘 해주는지 보고 그 결과물과 연결시키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진짜 일치하는지

성별, 불안감, 실제범죄율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음.

1. SNS 사용 -> 사용자들의 자존감과 반응(타인의 게시물, 타인의 댓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2. 인스타에서만 친한 척 하는 거. 그런 거
3. 스마트폰 기능 활용에 대한 것

=> 음성인식기능, 길가다가 하는지

=> 모바일 결제수단 : 실제의 활용성에 대해 궁금.

\*\* 음성인식 알고있는지 이용하는거랑 모르는 사람이 이용하는건지

\*\* 앱카드를 어떻게 쓸건지 같은 것들.

전과

전과를 한 학생이 하고 나서 학업성취도랑 대학만족도

* 전과를 하고싶엇는데 하지 않았던 학생. 후회하는지 다시 생각이 같았는지.

오차들이 많이 들어갈 것임.

\*\* 전후 만족도가 다르지. 그게 아니면 전에과에도 만족했니?

또 똑 같은 설문지에서 지금과 만족하니? 로 묻는거지

* 내 선택에 대해 후회를 안할려고 (자기합리화)
* 비표본오차라고 불림. 오차가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그게 잡히지 않아.
*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비표본오차가 항상 끼고 있어야함.
* 그 조사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조사연구중 하나야.
* 비표본오차는 계속 발생해. 표본오차

\*\*

표준편차 = (SD) = sigma^2

표준오차 = (SE) = sigma / sqrt(n)

표본오차 = + - (sigma/sqrt(n))

표준편차 : 평균적으로 왔다갔따

170츠을 기대할수잇지만 좀 더 클수도 있고 작아질수도 있고

10정도 왔다갔다.

평균적인거니까 160=180 사이면 되지

완벽한 평균이 아냐, 그래서 조금 더 들어오는거지

그래서 68% 정도로 들어온 거야

표준편차는 한명이 왔다갔따 하는 값 정도야

여기서 5명을 뽑아요

5명의 평균 x.bar => 5명

170 나올거라고 기대햇는데, 변할수있어요.

x.bar는 변할수 있는 것

x.bar가 뽑으면서도 170이길 바람

x.bar가 변할수잇는데 변하는 정도가 표준오차

\*\*\*\*\*\*\*\*\*\*\*\*\*\*\*\*\*\*\*\*\*\*\*\*\*

표준편차는 1명이 변하는 거

n명의 경우 표준오차인 것

\*\*\*\*\*\*\*\*\*\*\*\*\*\*\*\*\*\*\*\*\*\*\*\*\*

잊지않아야할 개념.

5명뽑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생겨나

원래는 1명은 없거든

N이 1보다 커지면 최대 최소 표준편차 평균 이런거 나오는데

통계량이라고 함.

\*\*

모집단에서의 평균 => 모수

표본에서의 평균 => 통계량

통계량 1명은 표본이잖아

한명을뽑았을땐 통계량이 없어.

통계량은 최소값, 최대값. …. 여러가지 값들이 있음

이 값들은 변할수 있음.(표준오차)

통계량마다 좀 다름.

x.bar꺼는 표본평균의 표준오차 sigma / sqrt(n)

표본평균의 표준오차

Standard error of mean

평균차이의 표준오차(t-test에서도 있음)

표본을 뽑으면 무조건 표준오차가 생각해. 통계량은 고정이 아니기 때문이지.

x.bar을 뽑았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있따면 표본을 뽑을 이유가 없고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겠어.

이때 추정.

Mu의 추정치 = M = 160

찜찜하니까

다른표본이 뽑힐 수 있음.

표준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표본이 뽑힐 수 있잖아. xbar에서 표준오차가 존재하잖아요 -> 다른 표본이 뽑힐 수도 잇었잖아요가 들어감.

x.bar로부터 어느정도 큰 값, 작은값일수도 있지. 진짜 mu가.

진짜 mu를 범위안에 넣게되지

그걸 구간추정이라고 부름

그때 표본오차를 가지고 씀. 신뢰수준에 따라 저 크기가 결정

표본오차는 신뢰수준이 결정되야 표본오차가 나옴.

표본오차는 표본을 뽑앗는데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을 때 얘기함.

표본을 뽑아서 잘 대표하는 애를 뽑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다 해도

사람이 응답할 때 실제 정확한 정답하고 다르게 체크 가능

* 오차가 발생
* 100명/ 1000명 뽑을때는 다름. 표준오차가 결정이 되고

99프로랑 90프로는 또 달라질수 있지. 추정치도 달라지지. 표본을 몇 개뽑아서 생긴 문제는 표본오차

조사원을 a로 썻다가 b로쓰면 응답률이 누가 더 좋을지 더 정확하게 대답할지

달라질 수 있음.

내가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는

내가 몇 명 뽑았냐에 따라 다름.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대답할 테니까

비표본오차는 N하고 상관없음

다만, 표본오차, 표준오차, 표준편차는 N하고 상관있음. 통계학자들이 컨트롤 할수잇는게 N 없는것은 비표본오차.

비표본오차는 매뉴얼화시켜서 설문지 만들 때 꼼꼼히 만들고

모집단의 규모가 줄일수록 sigma가 작아지게 됨.

(균일한 것 끼리 모이니까)

모든 과정을 사실 매뉴얼화해야함.

비표본오차는 조사기획부터 조사가 끝날때까지 계속 발생

몇 개 뽑았냐 누구한테 뽑았냐로 결정됨.

N수가 몇 개가 될지 컨트롤 하지만, 비표본오차는 불가능해

표본오차/비표본오차 비교설명하시오.( 이거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해 )